

대한민국 육군 우수성 알리고 국제협력 역량 강화

ADMM-Plus 분과별 연합 FTX 참가
캄보디아서 지뢰탐지기 등 소개
베트남에 장비 운용·의무 조치 전수

육군이 외국군과의 연합 야외기동훈련 (FTX)에서 우수한 임무수행능력을 선보였다.

육군은 “최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Plus)의 인도주의적 지뢰대응 활동(HMA·Humanitarian Mine Action)과 평화유지활동 (PKO·Peacekeeping Operation) 분과 연합 FTX에 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ADMM-Plus는 아세안(ASEAN) 10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베트남·브루나이·미얀마·필리핀)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호주·뉴질랜드·인도)이 참가하는 연례 국방부 장관 회의체다. HMA와 PKO 등 7개의 분과로 구성돼 분과별로 3년 주기의 연합 FTX를 전개한다.

회원국의 인도주의적 지뢰대응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지뢰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참가국을 혼합 편성한 부대의 지뢰제거 연합훈련과 지뢰대응활동 세미나 및 장비·물자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인도주의적 지뢰대응활동 분과 연합야외훈련에 참가한 육군 장병이 회원국 참가 장병에게 신형 지뢰탐지기 운용절차를 교육하고 있다. 육군 제공

HMA분과 훈련은 캄보디아와 중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아 15개국 36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한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그동안 참관 수준으로 참가해 왔던 육군은 올해 공병학교 지

뢰제거 전문교관과 특수기동지원여단 간부 등 10명을 현지에 투입했다. 이들은 회원국 장병들과 실질적인 훈련으로 지뢰·불발탄 제거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내 위협 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별 장비전시회에서는 신형 지뢰탐

지기(PRS-20K)와 지뢰보호의 등 육군의 우수한 장비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베트남과 일본이 공동의장국인 PKO분과 훈련은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렸다. 훈련에는 18개 회원국 120여 명이 참가했고, 임무수행간 공병장비 운용과 의무 상황조치 통합 상황이 주어졌다. 육군은 공병 장비운용 전문가 5명과 의무 요원 2명이 장비 운용계획수립과 정비 및 운용능력, 표준 응급처치와 의무항공 후송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면서 우수성을 과시했다.

육군은 이번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발표한 ‘공병 장비 및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훈련지원’에 관한 PKO 기여공약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장비 운용 교육과 기술 제공 등 국제사회 재건 역량을 강화하면서 PKO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욱(중령) 육군본부 공병실 지뢰제거지원계획장교는 “이번 ADMM-Plus의 분과별 FTX로 회원국들과의 군사협력교류를 굳건히 하고, 지뢰제거 및 장비운용 역량을 키웠다”며 “육군의 지뢰제거 정책과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임무수행 능력 제고 및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열 기자

청해부대 41진 양만춘함 아덴만으로 출항

내년 4월까지 선박 호송·안전 항해 지원

해군은 25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청해부대 41진 양만춘함(DDH-I·광개토대왕급) 출항 환송 행사를 개최했다.

가족과 동료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한 청해부대 41진은 아덴만 해역에서 40진 광개토대왕함과 임무를 교대한 뒤 내년 4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청해부대 41진은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춘함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UDT/SEAL)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해병대 및 의무요원으로 이뤄진 경계·지원대로 꾸려졌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청해부대 파병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해군은 효율적인 함정 운용을 통한 작전 운용성 강화를

위해 40진부터 파병 대상 함정을 기존 중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II)에서 광개토대왕급까지 확대했다.

청해부대 41진은 파병 기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호송 작전과 안전 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한다. 또 연합해군사령부(CMF)와 유럽연합(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가 주도하는 해양안보 작전에도 참여해 해상 테러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청해부대 41진 부대원은 국가대표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자랑스러운 청해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주기를 당부한다”며 “성공적인 임무 완수 후 건강한 모습으로 해군과 가족의 품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상용(대령) 청해부대 41진 부대장은 “부여받은 국민 보호와 국제평화 유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청해부대의 빛나



25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청해부대 41진 출항 환송 행사에서 장병들이 파병신고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는 전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과 해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군은 환송행사에 이어 부산작전기내 ‘아덴만 여명작전 전적비’에 작전 참가 장병

과 기여자의 이름을 추가로 각인하는 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전적비에는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가한 청해부대 6진 장병 270여 명과 석해군 선장, 이국종 교수 등 작전 기여자 2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원준 기자

해군 순항훈련전단 항해 중 전술집중교육

조함 실습·손상통제 지휘 등 진행
3~4명씩 소규모 조 편성 다양한 경험

2023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25일 졸업·임관을 앞둔 78기 해군사관생도를 대상으로 항해 중 전술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은 생도들이 임관 후 해군·해병대 장교로서 수행할 △조함 실습 △손상통제 지휘 △전술 기동 △전투체계 콘솔 운용 △항공기 통제 △상륙작전 등 주요 임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술집중교육을 진행 중이다.

전단은 첨단 모의장비와 콘솔 등 실습체가 갖춰진 4500톤급 훈련함(ATH) 한산도함에서 분야별 전문교관 주관 아래 전술집중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도 3~4명씩 소규모 조를 편성해 다채로운 경험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함 실습 교관인 이성복 대위는 “생도들이 실습체계를 통해 구현된 14개 기항지를 미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감각을 익히

는 조합실습에 매진하고 있다”며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전술집중교육을 통해 사관생도들은 해군 장교이자 해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지식을 체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황지환 생도는 “교육을 받으며 함정 운용과 항해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해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임무 수행 능력을 완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원준 기자